



KIA 타이거즈 하반기 달성할 기록들



이대진

팀 통산 1천700승, 4승 남았다

올림픽 휴식을 끝낸 KIA 타이거즈가 치열한 4강 싸움과 함께 풍성한 기록사상에도 나선다.

KIA는 이번 주 프로야구 통산 2번째 기록인 1천700승을 위한 승수싸움에 도전한다. 25일 현재 1천700승에 -4. LG와 우리의와 6연전에서 4승을 거머쥐었다면 1천700승 달성은 물론 주말 4위 입성까지도 가능하다.

국가대표 '테이볼 세터' 이응규를 앞세워 통산 3천300도루 달성을 위한 분주한 발걸음도 이어간다. 25일 현재 KIA는 3천283개의 도루를 기록해 앞으로 베이스를 17번 더 훔치게 되면 프로야구 첫 3천300도루의 주인공이 된다. 시즌 전반기 112개의 도루로 전체 3위에 올랐던 KIA는 빠르게 다음주께 기록을 완성할 전망이다.

영원한 에이스 이대진도 통산 100승을 위한 심호흡을 가다듬고 있다. 올 시즌 16경기에 나와 3.92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한 이대진은 올 시즌 5승을 추가하며 100승에 3승을 남겨두고 있다. 윤석민-이범석-데이비스-디아즈와 함께 선발전진을 구축하고 있는 이대진은 남은 29경기에서 5~6차례 정도 등판이 예상되는 만큼 올 시즌 100승 고지 점령도 가능한 전망이다.

주장 장성호는 타석에서 기록을 이어가게 된다.

지난해 발목부상을 입었던 장성호는 0.281의 타율로 2007시즌을 마감하며 '10년 연속 3할'이라는 대기

록을 놓쳤지만, 10년 연속 두 자리 홈런과 세 자릿수 안타 그리고 20개의 2루타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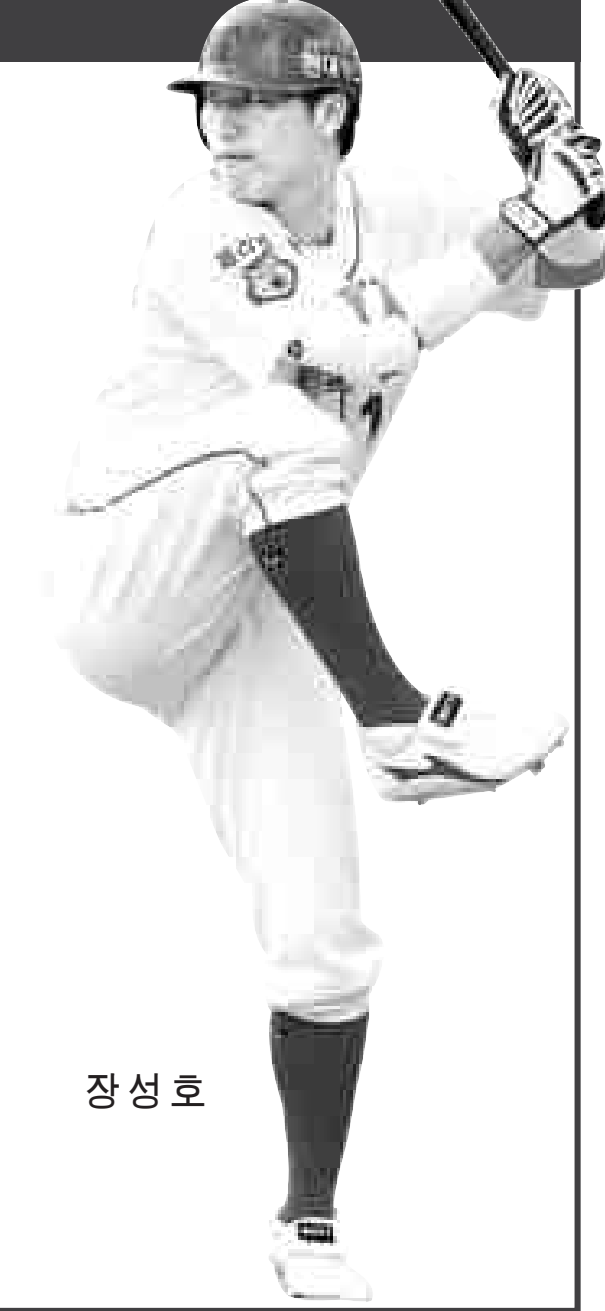
올 시즌도 발목과 늑골 부상으로 공백이 있었던 장성호는 71게임에 나서 타율 0.318, 홈런6개, 안타 77개(2루타 15개)로 전반기를 마감했다. 남은 후반기에서 4개의 홈런, 23개의 안타와 5개의 2루타를 때려내면 지난 1998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10년 연속 기록을 11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한편 200승-2천000타살진의 주인공 송진우(한화)는 또 하나의 신기록 3천이닝 투구에 도전한다. 송진우는 3천이닝 대기록까지 25와 3분의 2이닝을 남겨 놓고 있다.

삼성 양준혁은 한화의 장준훈 코치가 기록한 통산 1위 홈런(340)에 도전한다. 양준혁은 4개의 홈런을 추가하면 이 부문 신기록을 작성하게 된다. 16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 및 세 자릿수 안타 행진도 준비하고 있다.

18년 연속 두 자릿수 도루를 장식한 우리의 전준호는 양준혁에 이어 통산 2번째 2천안타에 9개의 안타를 남겨 두고 있다. 2개의 3루타를 추가하면 100 3루타 고지에 올라선 첫 인물이 된다.

SK의 선두 투수를 이끈 김성근 감독은 전반기까지 994승을 올려 김응용 감독에 이어 통산 2번째 1천승을 앞두고 있다.



장성호



가을 호수 가르느 힘찬 질주 26일 강원 화천군 화천호에서 '제7회 파로호배 전국카누경기대회'가 열려 1000m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힘차게 물살을 가르고 있다.

이젠 2010 월드컵을 향하여

허정무호 내달부터 소집 훈련

10일 북한과 靑지역 최종예선

허정무호가 내달 10일 치러질 북한과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에 나설 태극전사들을 28일 확정하고 내달 1일부터 소집훈련을 시작한다.

대한축구협회는 26일 "허정무 감독이 28일 대표선수 명단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소집훈련은 다음달 1일부터 파주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허 감독이 애초 예정보다 대표팀 명단을 늦게 발표한 것은 27일 예정된 프로축구 K-리그 컵 대회 경기를 지켜보면서 선수들의 몸 상태와 기량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기 위해서다.

코칭스태프들은 최근 여러 차례 미팅을 가지면서 태극전사들의 밑그림을 그렸고,

중주 컵 대회를 마지막 시험무대로 삼아 내달 5일 요르단과 10일 북한전에 나설 최종명단을 신중하게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보통 1주 전에 소속팀에 보내는 선수차출 협조공문에도 선수명단을 뺀 채 대표팀 명단 발표 날짜와 소집 예정일만 적어서 보냈다.

박지성 북한전 차출 안기로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이 무릎 부상에서 벗어난 정상 컨디션을 되찾고 있는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을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 최종예선 B조 1차전 북한전(9월10일)에 차출하지 않기로 했다.

대한축구협회는 26일 "허정무 감독으로부터 선수 보호차원에서 박지성을 대표팀 소집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경매 전문회사 - 불 앞서가는 사람불 - (주)옥션코리아

부동산 거래의 지부신! 법원경매 대증법률(주) T.062)229-9900 010-3619-1214

수완 부동산 컨설팅 H·P : 010-5714-1114 (하남공단 3번로 / 수완지구 옆)